반환점 돈 '주민과의 대화'… 빛가람동서 혁신도시 미래 비전 공유

에너지특화 혁신도시 청사진 논의… 정주여건, 문화 인프라 확충 공감대

'2026 주민과의 대화' 자리를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리며 나주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14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지난 7일 남평읍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2026 주민과의 대화' 일정의 일환으로 이날 빛가람동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며 전체 일정의 반환점을 돌았다.

이날 오전 10시 금천농협 빛가람지점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주요 공직자와 도·시의원, 기관 및 사회단체장, 주민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시정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한국전력을 포함한 16개 공공기관 입주를 통해 7826명의 이전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에너지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자리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여가 및 문화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첨단 과학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빛가람동의 역할과 미래 청사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를 목표로 한 6대 추진 전략 가운데 '균형발전 선도 모델'로서 빛가람 혁신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빛가람복합문화센터와 빛가람꿈자람센터 개소,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 공연장과 어린이 실내외 놀이터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빛가람동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지역 특성이 있는 만큼 주민들은 장수사진 촬영 지원을 비롯해 빛가람교 인도 구간 정비, 배수로 정비, 빛가람 호수공원 활성화,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다양하게 건의했다.

나주시는 빛가람동을 포함해 현재까지 남평읍 등 8개 읍면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으며 마을회관과 경로당 정비, 마을안길 확포장, 도로 정비 등 생활 밀착형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시민 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으로 추진 중인 주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긴 가운데 나주시는 남은 일정에서도 시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감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건의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책무"라며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바로 움직이는 행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은 주민과의 대화 일정에서도 작은 불편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담양군 등 4개 단체, '70일간 헌혈 릴레이' 동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박진성)은 14일 담양군, 곡성군, 육군 기계화학교, 공군 5감지대대 포함 4개 단체와 및 광주전남 헌혈의집 9개 센터에서 광주전남 시민 500여명이 생명을 구하는 '70일 간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히, 담양군에서는 공무원 및 군민 등 약 110여명이 단체헌혈과 헌혈캠페인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혈액수급 안정화에 큰 힘을 보태었다.

당일 담양군에서는 아침 8시 적십자 봉사회 담양군협의회(회장 고금숙) 소속 회원 20명이 군청에서 출근길 헌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적십바 봉사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핫팩을 배부하며 군민들에게 헌혈 참여를 호소하였다.

담양군에서는 당일 단체헌혈 참여자에게는 담양사랑상품권 1만원권 제공하였으며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 복규규정에 따라 헌혈 공가 사용도 적극 장려하였다.

헌혈 업무를 주관하는 담양군보건소 박경옥 의약관리팀장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헌혈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군청, 보건소, 경찰서, 보건지소, 복지관 5곳을 혈액원과 협조하여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며 '담양군 내 헌혈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연 4회의 단체헌혈 행사를 계획아고 있다"라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1월 14일 00시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혈액보유량은 2.7일분(혈액형별 ▲O형 1.9일분 ▲A형 1.8일분 ▲ B형 5.2일분 ▲AB형 2.0일분)으로 총 혈액보유량은 보건복지부 기준인 5일분을 훨씬 못 미치는 주의 단계 상태가 지속되어 시·도민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전남혈액원 박진성 원장은 "이번 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70일 간 헌혈 릴레이'에 완도군, 순천시 등 지자체와 군부대,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공무원, 회사원 등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헌혈의집에 방문하셔서 광주전남 수혈이 필요한 응급 환자들에게 헌혈로 36.5도의 가장 따뜻한 선물, 혈액을 선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헌혈 참여를 당부하였다.

담양/이종옥 기자

보성군 보성읍,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홍보 캠페인 전개

보성군은 지난 13일 보성읍행정복지센터(읍장 정삼룡)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일정에 맞춰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성읍 복지기동대·희망드림협의체와 함께 실용교육에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제도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웃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복지서비스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실직·질병·은둔형 생활, 고독사 위험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알려 줄 것을 안내했다.

특히, 보성읍은 주민의 작은 관심이 위기가구 발굴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쳐 가구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정삼룡 보성읍장은 "실용교육처럼 주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틈새 홍보를 지속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 복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함평군 나산면, 새해맞이 기관·사회단체장 소통 행사 개최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지역 현안 함께 논의하며 도약 다짐

함평군 나산면은 "지난 13일 새해를 맞아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이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는 함평군수를 비롯해 나산면장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돌봄 ▲복지 서비스 연계 ▲지역 안전 및 생활 환경 개선 ▲기관·사회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행사에 참석한 기관·사회단체는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행정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함평군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기관·사회단체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숙 나산면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기관·사회단체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강진중앙초 학생들, 바자회 수익금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2025년도 바자회 수익금 134만 원 이웃돕기성금 기탁

강진중앙초등학교(교장 서종기) 학생들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1,344,380원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성금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물품을 준비하고 판매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아이들은 나눔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며 이웃사랑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뜻을 모아 더욱 의미를 더했다.

서종기 강진중앙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경험이 아이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순천시 별량면, 새해부터 후원의 발길 이어져 지역사회 훈훈

서순천라이온스클럽 소화기 20개 후원 이어 순천CC 400만 원 기부

순천시 별량면은 새해를 맞아 서순천라이온스클럽의 소화기 후원과 순천CC의 후원금 기부가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가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순천라이온스클럽(회장 강성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1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소화기 20대를 가정별로 방문해 전달했다.

이어 14일에는 순천CC(대표 임종욱)가 지역사회 취약계층 복지사업과 별량중학교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400만 원을 별량면에 기부했다. 이날 임종욱 순천CC 대표는 별량중학교 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직접 전달했다. 나머지 300만 원은 '별량면 마중물보장협의체'에 기탁되어 설 명절 이전 복지 사각지대 세대를 발굴하고, 세대별 필요한 사항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욱 순천CC 대표는 "별량면 향토 기업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8년 전부터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정성인 기자